산업용 섬유·디지털은 미래성장 엔진

한국섬유신문(2022. 7. 21.)

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키워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, 다양한 전략수립을 통해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- 정부는 **(1)글로벌 브랜드 창출 (2)산업용 섬유 전환 (3)친환경 (4)디지털 확대** 4개 키워드로 섬유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산업부는 올해 2월 섬유패션디지털전략을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으며, 하반기는 친환경과 탄소섬유 주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. 섬유패션은 산업용 섬유 전환과 친환경 리사이클 확대 및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다.

– 섬유패션 산업은 7080년대 경제성장의 주력 산업이었으며, 반도체 리딩 기업 삼성, 대우, 코오롱 등이 섬유에서 시작했다. 현재 기능성 섬유소재 스판덱스는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. 산업용 신소재 아라미드는 양산에 성공해 생산하고 있다.

- 현재 친환경과 디지털은 전 세계의 큰 흐름이다.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패션브랜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, 디지털 역량은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섬유패션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.
- 산업용 섬유와 친환경 패션은 산업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야로, 디지털 패션은 콘텐츠와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고 아직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생소하고 하지만, 리스크보다 기회가 많다.
- 산업부는 지난 5월 메타패션 출시를 알렸으며, 향후 11월경 디지털 패션(메타버스) 런칭행사를 열 계획이다. 디지털 패턴 정보로 맞춤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원 및 IT업계 등과 협력 중이며 디지털 패션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 9월말 패션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전략 수립 중에 있다.
- 연구단체가 주축이 된 포럼에서 연구원들이 기술 흐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, 분석해 기술로드맵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R&D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려나갈 것이며, 연구단체 포럼에서 더 나아가 기업내 연구소 등으로 확장하여 섬유패션산업의 R&D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.